

# 비즈니스 이메일 영작문에 나타난 오류분석: 사례연구

황선유  
서원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 An Error Analysis on Business E-mails in English : A Case-Study

Seon-Yoo Hwang  
Professor, Liberal Arts, Seowo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번역기를 활용한 영작문 수업에서 대학생들이 작성한 비즈니스 이메일 영작문에 나타난 오류를 분석하고 설명하려는 연구이다. 연구는 취업실무영어 수업을 수강한 대학생들이 3가지 과제에 대해 작성한 21개 이메일을 분석하여 이에 나타난 문법오류를 분석 정리하였다. 이메일에 나타난 문법오류를 살펴보면, 동사의 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발생한 언어 내 오류가 가장 빈번했으며, 완료 시제를 사용해야 하는 문장에서 과거동사를 사용하는 시제에 관한 오류와 명사 앞에 정관사를 사용하지 않은 정관사 오류와 전치사 잘못 사용한 오류와 같은 언어 간 오류도 있었다. 문맥과 관련된 오류를 보면 지칭하는 명사에 맞게 단 복수대명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오류라던가, 문장을 연결하다가 생략할 수 없는 주어를 생략한 오류는 의미전달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심각한 오류이다. 이러한 오류분석을 통하여 영어를 학습하고 있는 학습자가 특정한 문법사항을 학습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과 학생들의 영어능력 발달단계를 가늠해 주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연구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 오류분석, 영작문, 이메일 영작문, 영작문지도, 동료피드백

**Abstract** This study aimed at providing a comprehensive account of the sources and causes of errors in business emails that Korean college students wrote using a translation machine. Data were collected from 21 emails written by the students who took a business English course. Findings indicated that the students tended to make frequent errors in verb use and verb tense as well as a definite article, countable/noncountable nouns, time adverbs and prepositions. Therefore, the study suggested that the students' common errors imply that they experience some difficulties learning these linguistic features. Given that learners' errors can give us valuable insights into teaching and learning how to write in English, pedagogical suggestions are put forward based on the study results.

**Key Words** : error analysis, English writing, email writing, writing instruction, peer feedback

### 1. 서론

글로벌 시대의 세계 경제 안에서 사용되는 세계어로서 영어의 지위가 점점 공고해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비롯한 수많은 첨단 기술 분야는 거의 영어권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어서 영어는 늘 새로운 단어 나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가면서 세계어로서의 지위를 굳게 다지고 있다.

그러나 영어를 외국어로 학습하고 있는(EFL: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한국의 교육환경에서 영어의 의사소통능력을 갖추는 것은 도전적인 과제이다. 영어교육의 목표는 원활한 의사소통능력을 함양하는 데에 있으며 이를 위해 초·중·고 교육기관에서 수년간 영어를 교육하고 학습함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글쓰기 의사소통과제는 여전히 부담

\*Corresponding Author : Seon-Yoo Hwang(syoohw@seowon.ac.kr)

Received October 8, 2018

Accepted December 20, 2018

Revised November 7, 2018

Published December 31, 2018

스럽고 어려운 과제이다. 더구나 글로벌 시대의 업무능력이 영어의사소통능력과 관계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1] 의사소통능력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혁신적인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공지능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컴퓨터기술과 IT 하드웨어의 발전에 힘입어 지속적인 발전을 이어 오면서 2014년 인공지능망 기계번역(Neural Machine Translation: NMT)을 도입하여 Deep Learning과 같은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면서 번역에도 점차로 정교함을 더하고 있다. 이런 정교화된 기계번역을 영어교육의 도구로 적절하게 활용하여 영어 글쓰기 수업에 적용하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경험하는 언어에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을 해소하고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글쓰기능력도 향상될 것이라는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다[2,3].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번역기를 활용하여 작성된 영문 이메일에 나타난 오류를 검토해 봄으로 학습자들은 실제로 의사소통 도구인 영어를 얼마나 정확하게 적절하게 구사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취업실무 영작문' 강좌를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수강학생들의 전공은 다양한 편이고 영어수준은 토익점수로 볼 때 초 중급에 해당되는 수준이다. 영어학을 전공으로 한 학생을 제외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영작문수업이나 실제 영작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초기에 10명으로 시작하였으나 연구에 필요한 3가지 과제를 작성하고 피드백을 받고 수정하고 완성하는 기간에 모두 출석해서 이 과정에 참여한 7명의 학생들의 제출한 최종 이메일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 2.2 연구절차

본 연구는 12주에 기간에 걸쳐 진행되었고 학생들은 이메일 과제를 작성하고 수정하고 동료 피드백을 받고 완성하는 과정중심접근법에 따라[4] 영작문 수업이 진행되었다.

수업 전반부에는 영어글쓰기에 필요한 구두법, 철자, 대소문자 사용에 관한 기계적인 기술에 대해 학습한 후,

영작문 과제가 주어지고 이 과제에 대해 학생들이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과정을 거치면서 개요를 구성한다. 작성된 개요에 따라 초안을 작성하는 단계를 거쳐 동료로부터 피드백을 받고나서 수정하고 개정하는 단계로 논리적으로 필요한 문장을 삽입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가하고 무관한 문장을 삭제해가면서 글을 구성해 간다. 초안부터 수정 개정단계에서 필요한 단어나 문장을 위해 항상 번역기와 사전을 사용하도록 허용해서 다양한 문장을 시도해보고 표현해보는 연습을 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였다.

### 2.3 비즈니스 이메일 영작문 과제

학생들이 작성했던 6가지의 이메일 영작문 글쓰기과제 가운데 본 연구 분석에 사용한 이메일 과제는 다음의 3 과제이다.

첫 번째 과제는 구직광고를 보고 지원하는 이메일을 작성하는 과제로 자신의 학력, 경험, 경력, 취미, 장점 등을 기술하게 된다. 두 번째 과제는 상사가 출장을 가면서 업무지시를 to-do list로 주고 갔을 때 중간에 상사에게 업무진행사항을 보고하는 과제이다. 세 번째 과제는 동료로부터 받은 업무관련 이메일을 받고 이에 답장을 작성하는 과제이다.

### 2.4 자료수집

오류분석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자료분석을 위한 5단계를 따른다[5]. 즉 자료를 수집하고(collecting errors), 오류임을 확인하고(identifying errors), 오류를 분류하고(classifying errors), 오류의 빈도수를 파악하고(quantify errors) 마지막 단계에서 오류의 원인을 분석하는(analyzing source) 단계를 거치게 된다. 본 연구도 5단계를 거쳐서 진행되었는데 특히 두 번째 단계인 오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류판정은 1차적으로 원어민교수자가 학생들과의 상담을 통해 전하려는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고 모호한 부분과 표현이 어색한 부분을 충분히 논의하면서 파악했고 이를 바탕으로 2차적으로 연구자와 원어민교수자가 검토하고 오류로 확인하는 단계를 거친 후 분석단계에 들어갔다.

## 3. 연구결과

### 3.1 문법오류에 대한 양적분석

학생들의 이메일 영작문에서 문법오류를 분석해 보니 Table 1과 같이 나타났다. 동사의 잘못된 사용에 관한 오류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동사시제에 관한 오류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대로 정관사사용이나 전치사 사용에도 오류가 많은 편인데 명사 앞에 정관사를 사용하지 않은 무관사오류와 전치사를 잘못 사용한 오류이다.

이전에 나온 명사를 대명사로 사용하는 경우단복수 대명사를 정확하게 사용하지 못한 오류라던가 문맥에서 의미에 적합한 주어를 사용하지 않은 대명사 오류는 의미전달에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심각한 오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Table 1. Analysis of grammatical errors

grammar features	frequency	%
verb	26	23.4%
definite article	20	18.1%
tense	16	14.4%
pronoun	15	13.5%
preposition	13	11.7%
noun	10	9%
conjunction	7	6.3%
adverb	4	3.6%
total	110	100%

### 3.2 문법오류의 예문분석

학생들이 작성한 이메일 영작문에 나타난 문법적 오류를 예문으로 자세히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 3.2.1 동사오류

동사오류는 주로 동사의 용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생긴 오류이다. 이 가운데서 목적어 여부에 따른 자동사타동사를 구분해서 사용하지 못해서 발생한 오류도 있으며 타동사인 경우 목적어를 어떤 형식으로 취하는지를 잘 몰라서 생긴 오류도 있다. 두 예문 ①②에서 major는 자동사라서 in을 사용해야 하고 introduce를 타동사인데 전치사를 사용하여 오류를 보이고 있는 예문이다.

동사가 취하는 목적어에 관한 오류로는 hope 동사가 목적절을 받아야 하는 것을 마치 4형식동사처럼 명사를 나란히 열거하고 있는 예문 ④나 try 동사의 목적어 형태로 부정사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부정사를 잘못 사용한

오류의 예 ④도 있다. 동사와 명사를 동일한 형태로 되어 있는 단어에서 동사 work 사용해야 하는 것을 명사 work로 사용한 오류의 예(⑤⑥)도 있다.

- ① ~a senior student majoring Phamaceutical engineering  
→a senior student majoring in Phamaceutical engineering
- ② ~introduce more about myself~  
→~introduce myself more
- ③ I hope you successful presentation tomorrow.  
→I hope you have a successful presentation tomorrow.
- ④ I will try call  
→I will try to call
- ⑤ I'm fit for work in international trade.  
→I'm a good fit for working in international trade.
- ⑥ ~and excellent office work ability.  
→~and excellent office working ability.

#### 3.2.2 정관사오류

한국어에 관사가 없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에게 관사는 항상 어렵고 문제가 되는 문법요소로 인식되어 왔다 [6-9]. 학생들의 이메일 분석에서도 회사, 나라, 호텔이름에 사용해야하는 정관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나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는 명사에 정관사를 사용하지 않은 오류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supplier, company, contract가 아니라 the supplier, the company, the contract로 정관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이다. 정관사오류는 빈도수가 많게 나타났으나 실제 반복해서 사용된 명사가 중복 계산된 예가 있어서 수치에 나타난 것만큼 심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3.2.3 시제오류

시제오류를 분석해보면, 현재완료시제로 기술해야 할 문장을 과거문장으로 작문한 경우가 가장 많이 드러났다 (①②③④⑤). 필요한 부분에 완료시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한국어에 완료시제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로 모국어 간섭에 의한 언어 간 오류라고 볼 수 있는데 연구 [10]에서도 영작문하면서 동사구에서는 완료시제를 학생들이 가장 혼동했던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반면에 예문

⑥는 언어 내 오류의 과일반화(overgeneralization)가 나타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목표어의 언어규칙이 실제 보다 과도하게 적용된 경우이다.

- ① I went to various fashion shows and exhibitions.  
→I have been to various fashion show and exhibitions
- ② I always work hard on everything.  
→I have always worked hard on everything.
- ③ ~my knowledge and skills accumulated will be~  
→~my knowledge and skills I have accumulated will be~
- ④ I will let you know what I did.  
→I will let you know what I have done.
- ⑤ The buffet lunch place was changed to the International Hotel.  
→The buffet lunch has been changed to the International Hotel.
- ⑥ I have enjoyed studying English and my major.  
→I enjoy studying English and my major.

### 3.2.4 대명사오류

대명사는 앞서 언급한 명사를 다시 지칭하는 경우가 많아서 의미상 문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의미전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문법요소이다. 의사소통을 위한 글쓰기에서 문맥에서 어떤 명사를 지칭하는 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데, 정확하지 않은 대명사를 사용하게 되면 문맥 안에서 다른 단어나 사람을 지칭하게 되는 것으로 독자들이 혼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문 ①에서 ‘overheads’를 받는 복수형 대명사를 사용해야 하는데 단수대명사를 사용함으로 오류를 범하게 되었고 예문 ②에서는 명사 앞에서 한정하는 소유격을 사용하지 않아서 어떤 메일박스인지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외는 다른 종류의 오류로는 접속사나 연결어를 사용하고 나서 오류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that절 안에서 주어 사용하지 않은 경우나(③), and 다음에 문맥상 앞부분의 주어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주어가 필요한 데 주어를 생략하는 오류가 나타나고 있다(④⑤). 이런 오류는 학생들이 긴 문장을 기술하다가 영작문에 대한 인지적 부담감이 가중되어서 나타나는 오류인 것으로 보인다.

- ① I will correct it-them.
- ② I left message on mailbox.  
→I left a message on Jack’s mailbox.
- ③ I called Jeff to say that (주어) canceled golf morning for Friday,
- ④ I asked Tessa the travel expenses, and (주어) call you next Tuesday.
- ⑤ I asked the phone supplier about our credit period and (주어) extended of 30 days
- ⑥ So I left a message in the mailbox and (주어) will try again.
- ⑦ So I booked International which is close to our company and (주어) give free breakfast for 10 Japanese guests.

### 3.2.5 전치사오류

예문 ①②에 나타난 장소에 사용하는 전치사 오류는 우리나라 학습자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언어 간 오류라고 볼 수 있다. 즉 영어에서 in, at, on, to 등이 한국말로 ~에 라고 해석되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이 구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8].

예문 ③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in을 사용했으나 동사와 연결해서 동사구로 work for를 보았어야 했는데 as a intern이라는 구가 삽입되어서 동사구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문 ⑤에서는 by를 사용해서 양이나 정도를 표현했어야 했다. 예문 ④에서는 below가 부사인데 명사로 잘못 인식해서 전치사를 사용한 전치사 첨가오류이다.

- ① ~ at the interview~  
→~ in the interview~
- ② ~work another country  
→~work in another country
- ③ I got an intern in Pyeongtaek Football Club  
→I worked as an intern for Pyeongtaek Football Club
- ④ Here are my answers in below.
- ⑤ He would extend his 30 days.  
→He would extend it by 30 days.

### 3.2.6 명사오류

명사 가운데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를 구

분해서 부정관사나 복수형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오류가 많이 나타났다. 예문 ①②③에서는 명사 compound, fit, certification을 셀 수 없는 명사로 생각하고 무관사로 사용했으며 그렇게 함으로 대명사를 사용할 경우에도 단수대명사로 받고 있어서 대명사오류도 범하게 된다.

또한 예문 ④⑤에서는 두 명사를 그대로 나열해서 사용했는데 복합명사로 사용가능한 명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치사 of를 사용하여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게 속하거나 관련되었다는 의미의 소유격으로 표현해야 한다.

- ① I learned to synthesize chemical compound in S university. I'm good at synthesizing it  
→I learned to synthesize chemical compounds in S University. I'm good at synthesizing these compounds.
- ② I think I'm fit for work~  
→I think I'm a good fit~
- ③ I got a Chemical Analyst Certification,~  
→I obtained Chemical Analyst Certification~
- ④ The person name ~  
→ The name of the person
- ⑤ Company name changed to~  
→ The name of the company changed to~

### 3.2.7 연결사오류

문장과 문장의 연결 관계는 글의 응집력(cohesion)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메일에 나타난 연결사를 분석해 보니,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접속사 so 용법에서 오류가 여러 번 발생했다. 대부분의 오류는 인과관계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에서 과다사용(overuse)하는 예이다.

예문 ①에서는 책임감이 있는 것과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인과관계라고 보기 힘들고 예문 ③에서도 회사가 이름을 변경했기 때문에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을 알아냈다는 연결관계가 논리적으로 인과관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예문 ⑥은 전체가 한 문장이기 때문에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를 사용할 게 아니라 원인관계를 설명하는 접속부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이다.

- ① ~I got a strong sense of responsibility, so I try

my best.

- ② I enjoyed studying English and my major. So, I was on Australia Working Holiday.
- ③ ~the name changed to Motorson-ckk. So I found that the contact person was Bryan.
- ④ Steve recommended Rosa as the presenter, so I asked Rosa~
- ⑤ These experiences have given me a motivation to apply to an internship program in US. So I really want to work in US.
- ⑥ So the buffet lunch place was changed to the International Hotel.  
→Therefore, lunch has been changed to the International Hotel.

### 3.2.8 부사오류

부사사용에서는 시간부사에서 오류가 많이 확인되었다. 예문 ①에서는 for 다음에 기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와야 하는데 시점을 나타내는 단어가 나와서 용법상 오류를 보이고 있다. 예문 ②에서 2016년 작년 1년 동안 이라는 표현을 쓰려고 했으나 어색한 표현이 되어버렸다. 예문 ③에서는 작년을 설명하는 관계사절을 사용하게 되면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관계사절 사용에 익숙지 않음을 보여 준다.

- ① For a last year  
→Last year
- ② for a year in 2016  
→Last year
- ③ When I did team work during last year,~  
→Last year when I worked in a team,~

## 4. 결론

본 연구는 실용영작문 수업에서 번역기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작성한 비즈니스 이메일 영작문에 나타난 오류를 분석하고 이를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이메일 영작문에서 나타난 문법오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사의 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발생한 동사오류 즉 언어 내 오류(intralingual errors)로 볼 수 있는 오류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 이전의 선행연구[6-8,11]에서 밝힌 대로 한국어 간섭현상으로 나타나는 언어 간 오류(interlingual errors)로 정관사 오류, 전치사 용법에 관한 오류, 완료 시제를 사용해야 하는 문장에서 과거동사를 사용하는 동사시제에 관한 오류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정관사 오류는 개별 이메일에 반복되는 명사나 고유명사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오류의 빈도 수치가 보여주는 만큼 의미전달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에, 지시하는 명사의 단 복수를 일치시켜서 단복수 대명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대명사 오류라던가, 문장을 연결하다가 문장이 길어져서 생략할 수 없는 주어를 사용하지 않은 오류나 글의 논리적인 연결에 관한 연결사오류는 의미전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오류이다.

결론적으로 최첨단의 번역기로 인해 일부의 문법오류와 단어사용 오류를 해결해 줄 수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문법적인 오류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밝혀졌으며 유형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물론 학생들이 번역기를 사용할 때 자신들이 원하는 문장 전체를 번역기로 찾기는 어려웠을 것인데 이는 현재 기계번역에서는 텍스트 전체를 번역단위로 잡는 것이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미 구축된 코퍼스 안에서 서로 일치할 확률이 높은 언어쌍을 매칭한다고 가정할 때 번역단위를 크게 하면 서로 일치하는 텍스트를 찾을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목적인 바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12].

본 연구는 적은 수의 이메일 자료를 분석했으며 어느 정도로 번역기를 사용했는지와 어떤 부분에서 번역기를 사용했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워서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거나 원인결과로 해석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연구의 한계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결과로 분석된 오류는 학습자가 새로운 체계를 받아들이고 익히기 위해 나타나는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13-16]. 또한 이메일 영작문에 나타난 오류의 원인을 파악한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빈번하게 나타나는 오류에 대한 교육 지도방법 등 후속연구가 나올 것으로 기대해 본다.

## REFERENCES

- [1] M. Cha. (2017). Enhancement of SMB Global competency for overseas market entry.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7(1), 11-16.
- [2] I. Jo. (2018). The effect of machine translation on English writing instruction: Focusing on the writing self-efficacy and the writing quantity. *The Jungang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60(2), 253-279.
- [3] S. Y. Hwang. (2017). The effects of the translator program on English email writing. *The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22(3), 261-283.
- [4] V. Zamel. (1983). The composing processes of advanced ESL student: Six case studies. *TESOL Quarterly*, 17, 165-187.
- [5] S. Coder (1974). Error analysis. in P. B. Allen & S. P. Coder(Eds.), *Techniques in applied linguistics*, 122-154.
- [6] Y. Kim. (1996). The aspect of peer students' error correction. *English Teaching*, 51(2), 125-147.
- [7] Y. Park. (1999). An analysis of errors in second language writing by English learners at university. *Studies in Language*, 15(2), 73-89.
- [8] H. Lee. (2017). An error analysis of English writing by college freshmen in Korea: Focused on interlingual and intralingual errors. *Cogito*, 83, 233-268.
- [9] H. Y Lee. (1996). English article usage of native Korean speakers. *English Teaching*, 51(1), 163-179.
- [10] J. Lim & E. Choi. (2008). A study of the effectiveness of error analysis and its practices in English writing for college students. *English Literature*, 13(1), 137-167.
- [11] S. Kim. (1999). A study on the effective teaching materials of English writing through an error analysis.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 95-124.
- [12] S. Lim & M. Han. (2014). A case study on "Google Translate": The correlation between translation quality and units of translation in machine translation. *Translation Studies*, 15(1), 177-209.
- [13] H. D. Brown. (2000).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4ed.), New York: Addison Wesley Longman.
- [14] S. Coder. (1967). The significance of learner's errors.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5(4), 161-179.
- [15] W. Y. Dai & D. F. Shu. (1994). Some research issues in contrastive analysis, error analysis and interlanguage. *Journal of Foreign Language*, 5, 1-7.
- [16] H. Ringbom. (1987). *The role of first language in foreign language learning*. Multilingual Matters, LTD.
- [1] M. Cha. (2017). Enhancement of SMB Global competency for overseas market entry. *Journal of*

황 선 유(Hwang, Seon-Yoo)

[정회원]



- 1982년 2월 : 서울대학교 가정관  
리학과(가정학사)
- 2000년 8월 : 중앙대학교 조기영  
어교육 (교육석사)
- 2001년 8월 : University of  
Kansas, TESL(교육석사)
- 2005년 2월 : 중앙대학교 영어언어과학 (문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서원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 관심분야 : 영어교육, 문법교육
- E-Mail : syoohw@seowon.ac.kr